

#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전통문화 체험 인기

누적 방문객 3만명 돌파  
체험 명소로 자리매김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이 누적 방문객 3만여 명을 돌파하며 고창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창읍성 서문 인근(고창읍 서문2길 14)에 위치한 전통예술체험마을은 전통문화와 공예,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해 8월 개관 이후 꾸준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체험마을에서는 명인·명장이 운영하는 도예체험과 천연염색 체험,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자수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도예체험은 물레체험, 일반 도예체험, 도자기 그림그리기 등으로 구성돼 흙을 만지며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천연염색 체험은 쪽 산수와 염색, 땀기 실크스크린 염색, 무지개 염색, 에코프린팅 염색 등 자연의 색을 활용한 전통 염색기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자수체험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전승체계를 기반으로 상보 수놓기, 찻잔 받침, 브로치, 열쇠고리, 팔찌 만들기 등 생활속 공예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승·전문가 과정도 별도 운영 중이다.

전통예술체험마을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모사업을 연계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예주간 및 한복주간 기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이 누적 방문객 3만여 명을 돌파하며 고창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획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생활민속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다.

또한 명절 '한가위 놀이마당', '제3회 고창치유문화축제', '고창 겨울 별빛마을'을 운영하며 야간경관과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과 행사가 이어진다. 체험마을 내 공용체험공간인 '해뜰채'를 활용해 기존 상설 체험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공예·문화 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체험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마을 주차장 인근에는 화장실과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객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통예술체험마을은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와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이 예능과 드라마, 다큐멘터리 촬영지로 잇따라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촬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 '남원 광한루원' 촬영지로 각광

예능·드라마·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 촬영 잇따라

남원시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이 예능과 드라마, 다큐멘터리 촬영지로 잇따라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촬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광한루원은 지난해 KBS 다큐멘터리 신들의 정원 촬영을 통해 전통정원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전국에 알린 바 있으며, 이후 MBC 대형 사극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 콘텐츠의 주요 촬영지로 활용되며 방송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촬영이 진행되며 젊은 세대와 전국 시청자들에게 광한루원의 매력을 알렸으며, KBS 굿모닝 대한민국, 생생정보, 세모네모, JTV 다큐멘터리 전북의 발견 등 다양한 생활정보·교양 프로그램에서도 광한루원의 역사

와 문화, 관광자원이 소개되며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광한루가 국보로 지정 예고되면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의 촬영 문의와 현장 답사가 꾸준히 증가, 전통 건축물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공간적 매력은 사극과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촬영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6월 중 대형 사극 드라마 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홍보영상 촬영과 국가유산청과 협업하는 KBS 다큐멘터리 촬영도 계획되어 있어, 이를 통해 광한루원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광 매력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도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립농악단 상설공연 성황리 열려

부안군은 지난 5일 부안매창공원 광장에서 부안군립농악단 상설공연을 개최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신명 나는 전통문화의 향연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부안을 대표하는 전통예술인 부안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들이 일상 속에서 전통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올해 총 4회에 걸쳐 상설공연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된 공연에서는 부안농악 판굿을 비롯해, 상모놀이, 설장구, 개인놀이 등 다채로운 농악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 하안양옥집서 전북 국립공원 만나다

국립공원공단 공동기획전 '국립공원, 예술로 피어나다' 8월 1일까지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옛 도지사 관사인 하안양옥집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공동 기획한 두 번째 기획전시 '국립공원, 예술로 피어나다 : 유람의 기록, 산을 걷다'를 오는 8월 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참여 예술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전북의 대표 국립공원인 내장산과 변산반도, 덕유산이 지닌 자연경관과 인문학적 가치를 예술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유람기를 바탕으로 전북의 산과 국립공원이 품은 역사와 문화, 풍경을 새롭게 조명한다. 어반스케치와 수목화, 사

진·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색다른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하안양옥집이 지닌 역사성과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전북의 자연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국립공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 기간에는 국립공원 탐방사무소와 함께 하는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청사초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전시 해설(도슨트), 자연과 전통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공연, 유람록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운영된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하안양옥집은 과거의 공간을 문화예술로 되살려 도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생생리뷰단' 발대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경운)은 지난 5일 '2026 생생리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문화예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리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8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생생리뷰단은 재단의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공연과 전시를 도민이 직접 체험한 뒤 SNS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참여형 모니터링 사업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재단 관계자와 생생리뷰단으로 선정된 도민 20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안내 △리뷰단 활동 유의사항 안내 △홍보 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홍보 교육에는 '로컬매거진 더전주'를 강사로 초청해 리뷰 콘텐츠 제작과 SNS 활용 방법 등 실무 중심 교육을 2시간 동안 실시했다.

생생리뷰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북 곳곳에서 열리는 공연과 전시 현장을 직접 방



문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리뷰단이 현장에서 느낀 감동과 관람 포인트는 사진과 영상, 글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생생리뷰단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세대별 시각이 반영된 폭넓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